

## Radical Disciple XII.

### 더 낮은 곳으로 가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 1.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3]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28:31]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제자들도 사도행전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말했다.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것은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이 제자들이 이루어야 할 사명이다.

#### 2.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사랑이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다. 사랑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이다. 왜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려운가? 나 혼자 사는 무인도라면 필요가 없는 말씀이다. 인간이란? 사랑받고, 사랑을 주어야 하는 존재이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관계'의 문제이다. 관계란? 몸의 혈관과 같다. 막히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환경과의 관계? 막혀있는 것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 자연을 돌보지 않았다. 지금 그 관계가 막혀있는 것이다.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이사야 59: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막혀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막혀있다 (고린도교회 : 모든 문제가 막힘으로부터 온다). 육체도 마찬가지이다. 막혀있고, 순환되지 않고, 정체되면 썩는 것이다. 육체가 사망인 이유는 결국 나이로 막힐 것이기 때문에, 침대에 마지막으로 누워 정체되는 것이다. 그러면 썩기 시작한다. 결국 죽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 하는 것이다.

#### 3. 막힘, 묶임, 높아지고 낮아진 것, 보이지 않는 계층과 장벽들이 무너져야 한다. (이사야 11장)

[이사야 11:6-9]

6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1) 더 낮은 곳으로**

‘이리 - 어린양’ / 표범 - 어린염소 / 송아지 - 어린사자 / 암소 - 곰 / 독사 - 어린아이

이사야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이다. 이 땅의 구조에서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양육강식의 ‘힘’이 중요시 되는 죄의 나라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리, 표범, 사자, 곰, 독사가 되기를 원한다.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단 말인가? 답은 하나이다. 힘 있는 존재가, 강한 존재가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 낮은 곳이란 섬김의 자리, 겸손의 자리, 남을 나보다 낮게 하는 자리로 가야한다. 어린양, 염소, 송아지, 어린아이를 섬겨야 한다. 존중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사자들이 어린양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나라가 된다. 사자가 자신을 내려 놓아야 한다. 어린양을 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친구’라 생각해야 한다.

사랑은 존재가 변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 형제 삼으셨다. 죽을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에게 친구와 형제가 되는 존재로 변화였다. 누가 그렇게 한 것인가? 힘 있는 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눈높이를 맞추신 것이다. 그 때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 세상의 담이, 세상의 벽이, 높아진 것이 낮아지고 서로 소통하는 평지가 된다.

우리 내면안에 그 일이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내면안에 임했다. 내면의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가 바깥을 나타나는 것이다.

**(2) 어울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어울림’이다. 사자만 있고, 어린양만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와 같이 획일화 된 나라는 바벨탑이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 다른 존재가 함께 어울림 가운데 있는 것이다. 세상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계층화 되어있고, 분열되어 있다.

약한자와 강한자, 가난한자 부한자, 세대별, 인종별, 나라별 모두 획일화 되어있다. 함께 어울리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 얼마나 성숙한 나라인가?

진짜 아름다움은 ‘어울림’이다. 높은 산과 낮은 산이 함께 그림을 만드는 것이다. 지루함이 없다. 역할에 차별이 없다. 그 어울림이 바로 ‘몸’이다. 눈이 중요하지만 눈이 발톱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 높은 산과 낮은 산, 서로 다른 존재들이 어울려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이 진짜 아름다움이다.

**4. 은총적 사고 - 담아내는 마음**

이런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오기 위해서 우리는 은총의 사고, 사랑의 사고를 해야한다. 하늘의 사고방식이 팔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있다.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말한다. 나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내 목마름을 채워줄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다. 로드십을 말한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사고는 ‘공허, 애통함, 온유함’이다. 변해야 한다. 경쟁, 갈등, 시기, 질투의 마음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허, 애통함, 온유함으로 생각한다. 경쟁자를 제거하는, 원수를 대적하는 복수의 문화가 아니다. 왓지 ‘불쌍해 보인다’ 참으려고,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다. 위로부터 부여져야 한다.

미운 마음이 없어진다. 이해가 된다. 마음이 커진 것이다. 담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담이 허물어 진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안에 실체가 된다. 은총적 사고를 하라.